

헬싱키, 혼잡 지역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열지도 서비스 개시

<https://www.hel.fi/uutiset/en/kaupunginkanslia/the-new-heatmapwebsite-shows-the-most-congestedareas-of-helsinki-in-real-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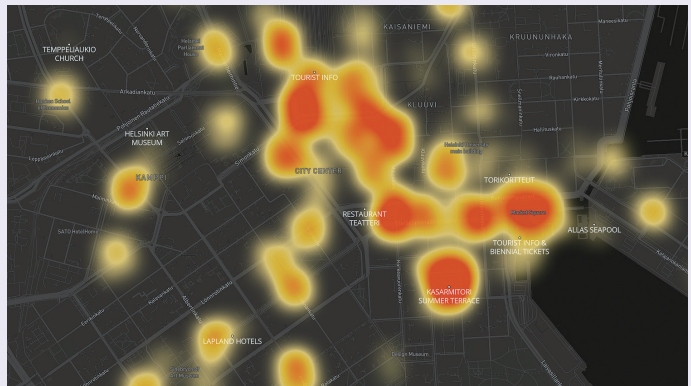
<https://www.heatmap.fi/helsinki/>

핀란드 헬싱키시가 관광지와 주요 명소의 혼잡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열지도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각 지역의 혼잡 상태를 색상으로 구분하여 보여주며, 1분마다 상태가 업데이트된다. 해당 서비스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든 무료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관광 분야의 회복을 돕기 위한 핀란드 경제고용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헬싱키는 이번 서비스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인파를 피해 안전한 도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기업과 도시가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헬싱키는 시의 주요 명소를 비롯하여 관광지와 이벤트 중심지 등 도시공간 곳곳에 센서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센서가 휴대전화와 같은 장치를 통해 익명의 블루투스 신호를 수집한다. 이를 통해 ▲시점마다 지역의 밀집도 ▲특정 위치에서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 ▲센서 네트워크 내 사람들의 이동 양상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데이터를 마케팅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 관광지나 명소의 매력도와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하고 개선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교통계획이나 환경부하 측정을 위한 도구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보았다.

헬싱키시 경제개발과의 책임자는 “현재 코로나19가 야기한 보건 위기는 관광 분야에도 매우 큰 타격을 입혔고, 특히 숙박업과 요식업, 관광 서비스가 주요 산업인 헬싱키는 이에 더욱 큰 영향을 받아왔다”라면서 “이번 열지도 서비스는 안전한 헬싱키를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도시 공동운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업의 취지를 강조했다.



헬싱키 열지도 서비스 화면

출처: 헬싱키 열지도 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heatmap.fi/helsinki/>(검색일: 2021.9.7)